

# 자살의 대인관계 이론에서 회복력 요인의 조절효과 검증; 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윤정<sup>1</sup>, 육성필<sup>1\*</sup>, 김은주<sup>2</sup>

<sup>1</sup>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위기관리전공, <sup>2</sup>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 Moderation Effect of Resilience Factor in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in University Students

<sup>1</sup>Yoon-jung Cho, <sup>1\*</sup>Sung-pil Yuk, <sup>2</sup>Eun-ju Kim

<sup>1</sup>Dept of Crisis Management, Yongmoon graduate school of counseling psychology

<sup>2</sup>Dept of Social Welfare, Ewha womans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자살의 대인관계이론에서 위험요인인 좌절된 소속감, 인식된 부담감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잠재적 회복력 요인인 희망과 자기용서의 역할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기간은 8개월이었으며,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권의 대학생 316명이다. 연구방법은 인식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 그리고, 조절변수인 자기용서와 희망 간에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모두 유의미하였다. 인식된 짐스러움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자기용서가 조절효과가 있는지,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희망이 조절효과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자기용서와 희망 모두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대학생들을 위한 자살예방교육과 자살을 생각하는 대학생을 위한 상담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의 회복력 요인인 희망과 자기용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더 많은 회복력 요인을 탐색하는 연구를 지속하여 자살의 위험요인과 함께 다양한 회복력 요인을 포함한 자살위험성평가, 자살예방교육, 자살위기상담,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나라 자살예방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자살의 대인관계이론, 회복력 요인, 희망, 자기용서, 자살예방교육, 자살예방정책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ncorporate resilience factors into current suicide research that is focused on risk factors by validating the role of hope and self-forgiveness, which are potential resilience factors, in thwarted belongingness and perceived burdensomeness, risk factors according to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Data was collected from 316 undergraduates in Seoul and Gyeonggi areas. We examined the correlations between self-forgiveness, hope,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and suicidal ideation and tested moderating effects of self-forgiveness and hop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suicidal ideation and between thwarted belongingness and suicidal ideation. The study results were all significant, indicating that self-forgiveness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burdensomeness and suicidal ideation and that hope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warted belongingness and suicidal ideation. The result will be a basis for incorporating and resilience factors into the suicide risk assessment when educating suicidal prevention and counseling college students. Further research on studying more risk factors and resilience factors will contribute to establishing more useful and various suicide risk factor evaluation, prevention education, counseling and policies.

**Key Words** :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Resilience Factor, Hope, Self-Forgiveness, Education of Suicide Prevention, Suicide Prevention Policy

\*Corresponding Author : Sung-Pil Yook(ysp62@hanmail.net)

Received February 23, 2018

Accepted June 20, 2018

Revised May 25, 2018

Published June 28, 2018

## 1. 서론

세계적으로 자살은 10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이며, 전 세계에서 매 40초마다 1명씩 목숨을 잃고 있다[1]. 우리나라 자살률은 여전히 OECD국가 중 1위이며[2], 특히 대학생이 포함된 2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다[3]. 통계에서는 20대 대학생의 자살률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나 대학생들의 자살은 매우 심각하다[4]. 대학생의 자살은 고학력자로서 사회의 중추적인 생산적 자원이고, 극심한 가족의 고통과 대인관계 상실[5]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며, 지역사회 해체 등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분야에 걸쳐 국가적으로 막대한 비용손실을 가지고 온다[6,7]. 따라서 대학생의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문제로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8,9]. 실제로 대학생들이 포함된 초기성인기가 자살생각, 자살시도, 자살로 인한 사망이 높은 시기이지만[10], 그동안 대학생 대상의 자살에 관한 연구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드물며, 대부분 중·고등학교 청소년과 노인층에 집중되어 있다[11,12].

대학생 발달단계의 특징은 급격한 삶의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할 시기[13]이며, 독립에 대한 압박, 자율성과 책임, 새로운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적응, 진로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14,15], 취업스트레스 등 심리사회적 과제로 인해 부적응적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다[15,16].

그러나 이러한 스트레스원들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 즉,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해서 모두가 우울과 절망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며, 자살을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17]. 설사 자살생각을 하다고 해도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을 완결하지 않는다[17]. 오히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긍정적이고 적응적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자살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위험요인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18], 자살에 관한 연구와 자살예방정책들은 대부분 정신장애와 관련하거나 자살의 위험요인에 기반하여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자살의 위험요인들의 영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회복력 요인(resilience factor)들의 역할을 탐색[17,18]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회복력 요인들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18]. 회복력은 심각한 스트레스나 견디기 어려운 사건을 경험할 때, 이를 극복하며 긍정적으로 적

응하여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인간의 능력이며, 특정 결과와 관련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 과정이라 할 수 있다[19]. 또한, 자살의 회복력 요인은 개인이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이나 역경이라고 인지하는 상황 속에서 발휘되는 유동적 개념이며[20], 개인의 적응 및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19]. Johnson 등[21]은 자살의 위험요인과 자살생각, 자살시도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심리적 구성요소로서 회복력 요인들을 강조하였으며, 자살행동의 개입에 있어서 회복력 요인을 포함하는 것이 자살의 추후개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자살의 대인관계이론[22]에서의 위험요인은 인식된 부담감, 좌절된 소속감 그리고 습득된 실행능력(capability)을 제안[22]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17]에 기반하여 습득된 실행능력을 제외하고 인식된 부담감, 좌절된 소속감을 살펴보았다. 대상을 노인으로 연구한 선행연구[17]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인식된 부담감,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에서 회복력 요인 중 자기용서와 희망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지 각각 검증하였다.

우선, 대인관계이론에서의 위험요인인 좌절된 소속감을 살펴보면, Joiner[23] 연구에서 소속감 결여를 느끼는 뇌의 영역은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는 뇌의 영역과 유사하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유발하고, 자살 욕구를 일으키는 위험요인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대학생들에게 좌절된 소속감은 외로움, 상호작용의 어려움[24], 사회적 고립[25],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인생의 어느 시기보다 자살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26]. 대학생의 자살생각은 가족, 친구,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만족스러운 대인관계와 매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18], 대학생들은 주위의 지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대인관계에서 생기는 부적응적 문제들이 있을 때, 우울감을 경험하고, 절망감이 더해져 자살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27,28]. 일반적으로, 자살위기에 처한 개인들은 대체로 미래에 대해 절망적이며,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나아지지 않으며, 견딜 수 없을 것 같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29].

그런데, 절망감과 희망이 강한 부적상관[30]이 있다. Snyder 등[31]의 연구에 따르면, 희망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나 경로를 찾는 경로사고

(pathway thought)와 그러한 경로를 활용하여 목표지향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동기화하는 주도적 사고(agency thought)로 구성된다고 정의하였다[31]. 이처럼 높은 희망을 가진 사람들은 목표를 향한 다양하고 적용 가능한 대안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17], 극복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절망감을 느낄 때 목표에 도전하려 하며, 그 도전을 위한 구체적 방법들의 경로를 더 많이 찾는 경향이 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며[32], 가능성으로 미래를 조망하여 위기의 시간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희망절수가 낮은 대학생들은 절망감으로 자살사고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33]. 최근 연구들에서 자살행동에 대한 절망감의 영향을 완충시키는 회복력 요인으로 희망을 제안하고 있다[18,28]. 특히, Hanna[34]는 희망의 개념을 자살 충동의 지표로 간주하였으며, 대학생들의 소속되고자 하는 욕구가 좌절되거나 만족스럽지 않아서 절망감을 경험할 때, 희망은 좌절된 소속감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중재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대인관계이론에서의 다른 위험요인인 인식된 부담감은 대학생들의 취업 스트레스와[30] 그에 따른 반복된 좌절, 학업의 어려움,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35], 낮은 자존감[36], 과도한 죄책감[37] 등으로 인해 자신이 사회에 무가치한 존재로서 남에게 부담을 준다는 인식을 하게 되며, 과도한 부정적 정서[38]를 경험하게 되고, 자살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인식된 짐스러움은 대학생의 자살관련 행동을 유의하게 예측할 수 있다[39,40].

일반적으로 자살위기에 처한 사람은 타인에게 부담을 준다는 인식을 하여 스스로 무능하다고 지각하며, 자신의 죽음이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왜곡된 생각을 할 수 있다[22].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죄책감, 자기비판, 수치심을 가지게 되고 부정적 감정의 범위를 확장시키며 자신을 벌하려 하고, 자살을 생각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39,40]. Shneidman[20]이 언급한 심리적 고통 안에 부담을 준다는 인식은 자기혐오, 자기비난, 불안 등을 포함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식된 부담감과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거의 없으나[28], 청소년기 외 모든 연령대에서 정적상관을 보인다[24].

이렇듯 인식된 부담감은 분노, 죄책감, 자기비판 그리고 수치심 등을 포함하며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는데, 회

복력 요인인 자기용서는 이러한 자살생각과 강한 부적상관을 나타낸다[25].

회복력 요인인 자기용서는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부정적 감정이 향하는 것을 자비와 수용으로 대체하는 과정을 포함하는 사고이며[41], 자기용서를 하는 개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이를 책임지려고 하며, 필요하다면 잘못에 대해 보상하기 위한 여러 행동을 시도하게 된다[39,42]. 그러나 낮은 자기용서를 하는 개인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느끼며[40], 이러한 욕구는 내면화된 분노를 느끼고[43], 자살행동을 하게 될 수 있다[44]. Cheavens 등[17]은 이러한 수치심, 분노로 인한 자살행동은 자기용서에 의해 중재 된다고 제안한다[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희망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고, 인식된 부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용서가 조절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검증하였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서울, 경기권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316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답자는 남자 142명(44.9%), 여자 174명(55.1%)으로 평균 연령은 22.2세였다. 형제 관계는 외동이 33명(10.4%), 본인 포함 2명이 211명(66.8%), 본인 포함 3명이 60명(19.0%), 본인 포함 4명 이상이 9명(2.8%), 무응답이 4명(1.3%)이었다. 출생순위로는 외동이 35명(11.1%), 첫째가 135명(42.7%), 둘째가 117명(37.0%), 셋째가 24명(7.6%), 넷째가 4명(1.3%), 무응답이 1명(0.3%)이었다.

### 2.2 자료수집

서울, 경기권 4개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지(237), 온라인 설문지(88개)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 중 결측치와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9개를 제외한 총 316개의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 2.3 측정도구

2.3.1 SSI(Scale for Suicidal Ideation; 자살생각 척도)

Beck 등[45]이 만든 SSI(Scale for Suicidal Ideation)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Variable	group	Frequency(n)	Percent(%)
Gender	female	174	55.1
	male	141	44.6
	No answer	1	.3
Age	18-19yr	22	7.0
	20-21yr	151	47.8
	22-23yr	79	25.0
	24-25yr	31	9.8
	over 26yr	26	8.2
	No answer	7	2.2
Sibling relationships	Only child	33	10.4
	2 children	211	66.8
	3 children	60	19.0
	4 Children	9	2.8
	No answer	3	.9
Birth order	Only child	35	11.1
	First	135	42.7
	second	117	37.0
	Third	24	7.6
	Fourth	4	1.3
No answer	1	.3	
Total		316	100.0

와 Harlow 등[46]이 완성하고 조현진[47]이 변안한 SIS(Suicide Ide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살에 대한 생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SSI를 사용하였다. SSI는 자살생각 또는 자살행동과 관련된 19개 문항에 대하여 0에서 2까지의 점수로 측정하며, 합산으로 자살생각의 정도를 측정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83으로 나타났다.

### 2.3.2 Interpersonal Needs Questionnaire(INQ; 대인관계욕구질문지)

인식된 짐스러움과 좌절된 소속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대인관계 욕구척도[22]를 사용하였다. 전체 30개 문항 중 16개 문항은 짐이 된다는 인식을 측정하며, 14문항은 좌절된 소속감을 측정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인식된 짐스러움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는 .887이었으며, 좌절된 소속감의 내적일치도 cronbach's  $\alpha$ 는 .923이었다.

### 2.3.3 Dispositional Hope Scale(HS; 희망척도)

개인 가지고 있는 희망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HS 척도[48]를 사용하였다. 희망척도는 '분명히 아니다'에서 '분명히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뢰도 분석 결과 문항-총점상관(item-total correlation)이 .3보다 낮은 4문항(3번, 5번, 7

번, 11번) 문항을 제거하고 8문항만을 사용하였다. 8문항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890으로 나타났다.

### 2.3.4 The Heartland Forgiveness(HFS-S; 자기용서척도)

개인이 자기를 수용하고 용서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SSFS 척도[49]를 사용하였다. SSFS는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 척도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차별적 상태와 자기수용적 상태의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차별적 상태를 역산하여 자기용서의 정도를 측정한다. 16문항 전체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는 .908로 나타났다.

## 2.4 자료분석방법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차적으로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다음은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등[50] 절차에 따라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이 아니라 회귀분석을 이용한 조절효과를 검증한 이유는 첫째, 본 연구의 목적이 복수개의 독립변수, 조절변수, 종속변수에 대한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1개의 종속변수에 대하여 1개의 독립변수(인식된 죄스러움, 좌절된 소속감)가 서로 다른 조절변수(자기용서, 희망)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기 때문에 단변량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조절효과를 구조방정식모형을 이용하여 잠재변수 수준에서 조절효과를 검증하면 정확한 값을 알기 어려워 상호작용그림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 더미변수화한 성별(남자=1)과 연령을, 2단계에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를, 3단계에는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난 경우에는 조절효과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 기울기 검증과 조절효과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기술통계

인식된 짐스러움의 평균은 43.6(sd=15.4)이었으며, 최소값은 19, 최대값은 112로 나타났으며, 좌절된 소속감의

평균은 38.0점(sd=15.1)이었으며 최소값은 14점, 최대값은 92점으로 나타났다. 자기용서는 평균 48.1점(sd=8.9) 최소값 22점, 최대값은 64점이었으며, 희망의 평균은 23.2점(sd=4.4점)이었으며, 최소값은 8점, 최대값은 32점이었다. 자살생각의 평균은 7.5점(sd=6.0)이었으며, 최소값은 0 점, 최대값은 33점으로 나타났다.

### 3.2 변인 간과의 관계

독립변수인 인식된 짐스러움, 좌절된 소속감과 종속변수인 자살생각 그리고, 조절변수인 자기용서와 희망 간에 관계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인식된 짐스러움은 좌절된 소속감과  $r=.871$ 의 높은 상관이 나타났으며, 자기용서( $r=-.605$ ,  $p<.001$ )와 희망( $r=-.635$ ,  $p<.001$ ) 모두에서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자살생각( $r=.570$ ,  $p<.001$ )과는 정적상관이 나타났

다. 좌절된 소속감 또한 인식된 짐스러움과 유사하게 자기용서( $r=-.561$ ,  $p<.001$ )와 희망( $r=-.588$ ,  $p<.001$ )과는 부적상관이, 자살생각( $r=.570$ ,  $p<.001$ )과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 3.3 조절효과 검증

인식된 짐스러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자기용서가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등[50] 절차에 따른 조절효과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조절효과 검증 전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는 .494(인식된 짐스러움), .630(자기용서), .723(상호작용항), VIF는 2.024(인식된 짐스러움), 1.588(자기용서), 1.384(상호작용항)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결과, 자살생각에 대하여 인식된 짐스러움은 정적( $b=.115$ ,  $p<.001$ )으로, 자기용서는 부적( $b=-.181$ ,  $p<.001$ )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인식된 짐스러움과 자기용서의 상호작용

Table 2. Correlation between variables and mean and standard deviation

	Gender (male=1)	Age	Perceived burdensomeness	Thwarted belongingness	Self-forgiveness	Hope	Suicide Ideation
Gender(male=1)	1						
Age	.086	1					
Perceived burdensomeness	.023	-.126*	1				
Thwarted belongingness	.091	-.005	.870**	1			
Self-forgiveness	.058	.033	-.605**	-.559**	1		
Hope	.120*	.057	-.635**	-.584**	.513**	1	
Suicide Ideation	-.080	-.008	.570**	.569**	-.512**	-.330**	1
Mean	-	22.16	43.52	37.90	48.00	23.24	7.49
SD	-	4.10	15.51	15.18	8.98	4.35	6.02

\*  $p < .05$ , \*\*  $p < .01$ , \*\*\*  $p < .001$ ,  $n=275$  listwise deletion

Table 3. Moderating effect of self-forgiveness on impact of perceived burdensomeness on suicide ideation

Variable	Model1			Model2			Model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Constant	6.775***	1.909		4.633***	1.552		4.618***	1.519	
Gender	-.758	.722	-.063	-.774	.585	-.064	-.892	.573	-.074
Age	.048	.085	.034	.145***	.069	.102	.125	.068	.088
Perceived burdensomeness				.158***	.024	.403	.115***	.026	.294
Self-forgiveness				-.176***	.041	-.262	-.181***	.040	-.269
Interaction							-.006***	.002	-.200
	F=.652, R <sup>2</sup> =.005			F=39.137***, R <sup>2</sup> =.359, ΔR <sup>2</sup> =.354***			F=35.303***, R <sup>2</sup> =.388, ΔR <sup>2</sup> =.029***		

\*  $p < .05$ , \*\*  $p < .01$ , \*\*\*  $p < .001$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hope on impact of thwarted belongingness on suicide ideation

	Model1			Model2			Model3		
	b	SE	beta	b	SE	beta	b	SE	beta
(Constant)	7.898***	2.020		8.068***	1.678		7.723***	1.667	
Gender	-1.046	.728	-.085	-1.712**	.614	-.139	-1.781**	.609	-.144
Age	.012	.090	.008	.022	.075	.014	.022	.074	.014
Thwarted belongingness				.230***	.025	.564	.220***	.025	.539
Hope				-.002	.084	-.001	.019	.084	.014
Interaction							-.009*	.004	-.130
	F=1.031, R <sup>2</sup> =.007			F=34.125***, R <sup>2</sup> =.324, ΔR <sup>2</sup> =.3317***			F=29.165***, R <sup>2</sup> =.339, ΔR <sup>2</sup> =.015*		

항 또한 부적(b=-.006, 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어 조절효과가 나타났다(F=35.303, p<.001, ΔR<sup>2</sup>=.029, p<.001). 자살생각에 대한 인식된 짐스러움과 자기용서의 상호작용 효과를 Figure 1에 제시하였다.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기 때문에 평균을 보통, 1표준편차 아래를 저집단, 1표준편차 위를 고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을 실시하였다[51]. 단순기울기 검증결과, 저집단(z=.168, p<.001)과 보통(z=.112, p<.001)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고집단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z=.055, p=.117). 즉, 전반적으로 인식된 짐스러움이 증가할수록 자살생각이 증가하나 자기용서가 높은 사람들은 인식된 짐스러움이 증가하더라도 자살생각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조절효과의 효과크기 f<sup>2</sup>은 .047로 수용 가능한 범위로 나타났다[52].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희망이 조절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Baron 등[50] 절차에 따라 조절효과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조절효과 검증 전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는 .619(좌절된 소속감), .630(희망), .916(상호작용항), VIF는 1.616(좌절된 소속감), 1.588(희망), 1.092(상호작용항)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분석결과, 자살생각에 대하여 좌절된 소속감은 정적(b=.220, p<.001)으로 영향을 주었으나 희망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b=-.019, p=.231). 상호작용항은 b=-.009(p<.05)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조절효과가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대한 좌절된 소속감과 희망의 상호작용 효과를 Figure 2에 제시하였다.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기 때문에 평균을 보통, 1표준편차 아래를 저집단, 1표준편차 위를 고집단으로 구분하여 단순기울기 검증(simple slope test)을 실시하였다. 단순기울기 검증결과, 저집단(z=.259,

p<.001), 보통(z=.218, p<.001), 고집단(z=.177,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좌절된 소속감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생각이 증가하며, 희망이 높을수록 자살생각의 증가폭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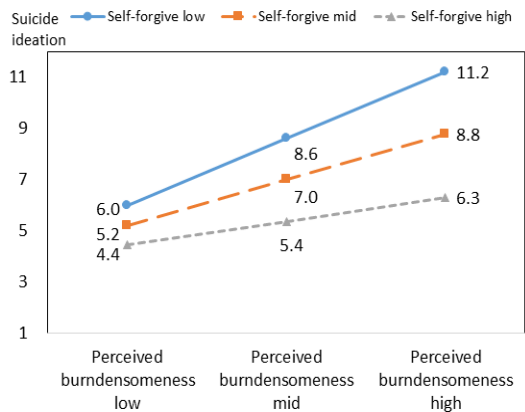


Fig. 1. Moderating effect of self-forgiv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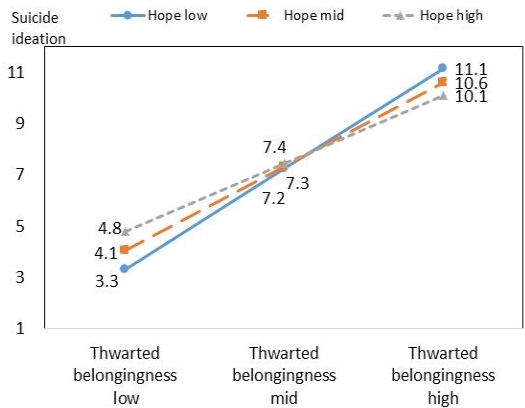


Fig. 2. Moderating effect of hope

조절효과의 효과크기  $f^2$ 은 .023로 수용 가능한 범위로 나타났다[51].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이론의 위험요인 중 대학생의 좌절된 소속감과 인식된 부담감 간의 상호작용이 자살에 강력한 위험요인이며, 그 위험요인을 중재하는 회복력 요인으로서 희망과 자기용서의 역할을 검증하였다.

첫째, 대학생의 인식된 부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회복력 요인인 자기용서가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용서는 자살생각과 강한 부적관계를 이루며,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가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지지 되었다. 대학생들이 인식된 부담감을 경험할 때 느끼는 분노, 죄책감, 자기비판 그리고 수치심 등이 자살생각과 관련이 있으므로 부정적 감정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자신을 벌하려 할 때 자살을 생각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자기용서는 개인이 자신에 대해 이해·수용하며, 자기와의 화해를 도모하는 것으로, 자기용서 수준이 높을 때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할 수 있으며, 자살행동을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대학생의 좌절된 소속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회복력 요인인 희망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은 노인 대상 표본의 선행연구에서는 자살생각과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에게는 현재보다 앞으로 자신이 해 나가야 할 발달상의 과제에 대한 희망이 회복력 요인으로서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 초기에 삶의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때, 문제해결 방식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희망을 가지도록 한다면 자살생각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기용서, 희망에 대한 개념의 발전은 대학생들에게 자살생각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자살생각을 완충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한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의 임상현장에서 갖는 적용점과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인식된 짐스러움은 자신이 사회에 쓸모없고 무가치하다고 주관적으로 느끼면서 자살생각에 이르게 되는 것이며, 자기용서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자신의 스트레스 반응, 자신의 성격적 특성, 자신의 환경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수용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움제공자(상담사 등)는 비판단적 수용과 공감을 통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과의 화해를 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강점찾기, 마음챙김(mindfulness), 연민쌓기(compassion-building) 등 대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면, 현실로부터 도피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자살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안들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자기용서에 대한 다양한 접근들은 자살생각을 완충시키고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이 좌절된 소속감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소속감이 좌절되었을 때 대인관계의 어려움 등으로 외로움, 절망감을 경험하게 되며, 욕구의 좌절로 자살생각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학생들이 극복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절망감을 느낄 때 위기에 도전할 수 있고, 그 도전을 위한 구체적 방법들의 경로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희망의 개념이 포함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과 훈련 혹은 희망에 대한 인식과 탐색을 할 수 있는 상담을 시행할 수 있다면 자살생각까지 이르지 않을 수 있을 것이며, 자살생각을 완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대학생의 자살행동과 관련된 연구에서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이 발달상에 어려움으로 인해 수많은 스트레스로 자살을 생각하게 될 때, 회복력 요인을 적용한 다양한 대안들을 활용하여 자살생각을 완충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자살의 위험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존의 자살위험성평가, 자살예방교육을 포함한 프로그램들, 자살위기상담과 자살예방정책 속에 회복력 요인을 포함하여 보다 확장된 시각으로 통합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 5.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은 첫째,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을 사

용하였다는 것이다. 대학생들의 자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영향으로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과도하게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불성실한 대답을 한 경우들도 있었다. 둘째, 서울, 경기권 3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몇몇 전공에 집중하여 조사하였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에 관한 연구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첫째,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회복력 요인인 희망과 자기용서를 기반으로 연구되었으나, 대학생들에게 좀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잠재적 회복력 요인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 이외에 다양한 집단에 적합하고 초점화된 자살의 회복력 요인 확인과 검증이 필요하다. 성별, 연령, 직업, 지역 등 각각의 문화마다 회복력 요인은 다를 수 있으므로, 집단별 특성에서 확인되는 회복력 요인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집단별 검증된 자살의 회복력 요인들을 포함하여, 그 문화에 특화된 자살위험성평가, 자살예방교육, 자살위험상담, 최종적으로 통합적 자살예방정책 수립에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S. H. Kim & C. N. Son. (2018). Mediating effect of defeat and entrap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6(4), 379-386.
- [2] OECD. (2012, 8, 21). *OECE Factbook 2011-2012: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factbook-2011-en>
- [3]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16). *Cause of death statistics*. <http://kosis.kr>.
- [4] J. Y. Park & J. K. Kim. (2014). The effects of life stress on university student's suicide and depress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pathway of family and friend's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 167-189.
- [5] J. Cerel, J. R. Jordan & P. R. Duberstein. (2008). The impact of suicide on the family, *Crisis*, 29(1), 38-44.
- [6] A. Marschean & I. A. Kincaid. (2003). *In: Developing a Plan and Strategy for Suicide Prevention in the Commonwealth (Senate Document. No. 19)*. Richmond, Virginia: The Joint Commission.
- [7] J. H. Park & H. Ahn. (2014).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Korean version of reasons for living inventory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Counseling*, 22(2), 113-133.
- [8] S. P. Yook. (2002). *The exploration of suicide related variables and the development of treatment program*.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 [9] Y. J. Choi. (2012). Effects of suicidal ideation in college students who report a history of childhood abuse.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14(2), 307-333.
- [10] J. Brezo. et al. (2006). Personality traits as correlates of suicide attempts and ideation in young adults. *Psychological medicine*, 36(2), 191-202.
- [11] S. Y. Ahn, J. H. Kim & B. Y. Choi. (2015). Meta-analysis on variables related to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12(3), 385-405.
- [12] S. H. Kim. (2016). Moderating effects of reasons for living and impulsiv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4(3), 103-113.
- [13] J. H. Lee & J. H. Lee. (2015). Convergence study on health risk behavior among Korean college students; Seoul vs. non-Seoul are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5), 345-356.
- [14] S. A. Kang, H. W. K & B. J. Park. (2016). The moderating effect of resilience in relation between job seeking stress, 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 and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1), 77-98.
- [15] J. U. Kim & Y. O. Ji. (2017).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between job-seeking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7(13), 523-545.
- [16] S. H. Kim & M. J. Kim. (2016). The Effect of career preparation program on self-esteem, self-efficacy related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development readines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4), 407-418.
- [17] J. S. Cheavens, R. H. Cukrowicz & S. M. Mitchell. (2016). Incorporating resilience factors into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The role of hope and self-forgiveness in an older adult sample,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2(1), 58-69.
- [18] Xingwei Luo, Qin Wang, Xiang Wang & Taisheng Cai. (2016). Reasons for living and hope as the protective factors against suicidality in Chinese patients with depression: a cross sectional study. *BMC Psychiatry*, 16:252. <https://doi.org/10.1186/s12888-016-0960-0>.
- [19] K. H. Lee & S. W. Lee. (2005). Concept analysis of



- 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13(1), 9-18.
- [20] Shneidman, & Edwin, S. (1996). *The Suicidal Mind*. NY: Oxford University Press.
- [21] J. Johnson, A. M. Wood, P. Gooding, P. J. Taylor & N. Tarrier. (2011). Resilience to suicidality: The buffering hypothe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31(4), 563-591.
- [22] K. A. Van Orden, T. K. Witte, K. H. Gordon, T. W. Bender & T. E. Joiner. (2008). Suicidal desire and the capability for suicide: Tests of the interpersonal-psychological theory of suicidal behavior among adults. *Journal of Consulting & Clinical Psychology*, 76(1), 72-83.
- [23] T. Joiner. (2005). *Why people die by suicid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24] K. J. Chu & S. Y. Lee. (2012).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burdensomeness, hopelessn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in adolescents and elder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1-53.
- [25] K. A. Van Orden, T. K. Witte, K. C. Cukrowicz, S. R. Braithwaite E. A. Selby & T. E. Joiner. (2010). The interpersonal theory of suicide. *Psychological Review*, 117(2), 575-600.
- [26] D. L. Trout. (1980). *The formation of homosexual identities*. In L. L. D. Garmets & D. G. Kimel(Eds).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sbian and gaymale experiences. 191-271.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27] S. H. Kim. (2016). The effect of stress and reasons for living suicidal ideation; The mediated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9), 505-514.
- [28] J. M. Huen, B. Y. Ip, S. M. Ho & P. S. Yip. (2015). Hope and hopelessness: The role of hope in buffering the impact of hopelessness on suicidal ideation. *Plos one*, 10(6), 1-18.
- [29] John A. Chiles., & Kirk D. Strosah. (2005). *Clinical manual for assessment and treatment of suicidal patient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Publishing, Inc.
- [30] H. S. Kim & K. M. Chae. (2014). The study of the mediating effects of the early maladaptive schema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seeking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2), 1-26.
- [31] C. R. Snyder. et al.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585.
- [32] Davidson CL., Wingate LR, Shlish ML., & Rasmussen KA. (2010). The great black hope: hope and its relation to suicide risk among African Americans. *Suicide LifeThreat Behavior*, 40(2), 170 - 80.
- [33] Range, Lillian M., & Susan R. P. (1994). Hope, hopelessness, and suicidality in college students. *Psychological reports*, 75(1), 456-458.
- [34] F. J. Hanna. (1991). Suicide and hope: The common ground. *Journal of Mental Health Counseling*, 13(4), 459 - 472.
- [35] S. Y. Kim & K. M. Chae. (2013).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life stress on suicidal Idea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the meaning of life, *Journal of Human Understanding and Counseling*, 34(1), 1-13.
- [36] Y. J. Lee & J. J. Ko. (2010). An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on suicidal ideation.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conference*, 154-155. Kunsan.
- [37] N. M. Hong. (2011).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 and peer victimization on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 the mediating pathway of interpersonal needs and hopelessness*.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38] C. Y. Wo & P. H. Kim. (2011). The multidimensional structure analysis of variables related to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4), 219-240.
- [39] J. H. Park & S. Y. Kim. (2017). Distinguishing 'genuine' self-forgiveness from pseudo and punitive self-forgiveness: An examination of the variants of self-forgivenes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31(4), 589-613.
- [40] J. H. Hall & F. D. Fincham. (2005). Self forgiveness: The stepchild of forgiveness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24(5), 621-637.
- [41] R. D. Enright & The Human Development Study Group. (1996). Counseling within the forgiveness triad: On forgiving, receiving forgiveness, and self-forgiveness. *Counseling and Values*, 40(2), 107-126.
- [42] L. Woodyatt & M. Wenzel. (2013). Self-forgiveness and restoration of an offender following an interpersonal transg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2(2), 225-259.
- [43] J. K. Hirsch, J. R. Webb & E. L. Jeglic. (2012). Forgiveness as a moder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anger expression and suicidal behaviour. *Mental Health, Religion, and Culture*, 15(3), 279-300.

- [44] H. S. Shim & J. H. Kim.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hame and suicide ide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forgiveness. *CNU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4(1), 159-179.
- [45] A. T. Beck, M. Kovacs & A. Weissman.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al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2), 343-352.
- [46] L. Harlow, M. Newcomb & P. Bentler. (1986). Depression, self-derogation, substance use and suicide ideation : lack of purpose in life as a mediational fac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2(1), 5-21.
- [47] H. J. Cho. (1990). *Adolescent suicide ideation in Korea : Effects of depression, self-derogation, and purpose in life on suicide ideatio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 [48] C. R. Snyder. et al.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 - 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 [49] L. Y. Thompson. et al. (2005). Dispositional forgiveness of self, others, and situation. *Journal of Personality*, 73(2), 313-35.
- [50] R. M. Baron & 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51] L. S. Aiken & S. G. West. (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ury Park: Sage.
- [52] Jacob. Cohen. (1988).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L. Erlbaum Associates, Hillsdale, NJ, England, 1-26.

조 윤 정(Cho Yoon Jung) [정회원]



- 2017년 6월 : 용문상담심리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2013년 6월 ~ 2015년 3월 : 보건복지부 주관 아주대산단 심리부검 센터 교육위원장 및 상담사
- 2017년 1월 ~ 현재 :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 정신건강법정책 연구소 연구원
- 2014년 1월 ~ 현재 : QPR 자살예방연구소 연구원
- 관심분야 : 위기관리, 자살, 심리부검
- E-Mail : yj0017@naver.com

육 성 필(Yook, Sung Pil) [정회원]



- 2003년 2월 : 고려대학교 심리학 박사(임상 및 상담)
- 2009년 9월 ~ 현재 :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위기관리전공 교수
- 2009년 3월 ~ 현재 : QPR 자살예방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 위기관리, 자살, 재난, 심리부검
- E-Mail : ysp62@hanmail.net

김 은 주(Kim, Eun Ju) [정회원]



- 2016년 6월 : 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박사
- 2017년 1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05년 3월 ~ 현재 : 한국노인상담연구소 소장
- 관심분야 : 노인자살, 복지정책, 심리부검
- E-Mail : 337coffee@hanmail.net